

세계 실내디자인의 표현경향

A Tendency of Interior Design Expression on the World

제4회 학술세미나가 "세계실내디자인의 표현경향"이라는 주제로 1994년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예술의 전당 서예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는 본 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가 주최하였으며, 건설부, 한국방송공사, 한국건축가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의장공사협의회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세미나 내용은 6일에는 '미국, 일본의 실내디자인 경향' - 대규모 상업시설 실내디자인과 국제화경향(요시미 하네다/일본), '지중해 연안의 실내디자인 표현경향' - 고대 이집트 건축(김윤희/피드인스티튜트, 오영근 교수/호서대 실내디자인과 교수), 고대 그리스 건축(정낙원 교수/신구전문대 산업디자인과), 터키 건축(서승하/한티디자인), 동구 건축(안희영 교수/건국대 실내디자인과), 독일현대 건축(신홍경 교수/경원대 실내건축학과)으로 지중해연안의 도시를 답사한 것을 지역별로 소개하였고, 7일에는 '한국 실내디자인의 표현 경향'(김문덕 교수/건국대 실내디자인과), '유럽 현대디자인의 표현경향'(박진배 교수/한성대 산업디자인과)을 발표하였다.

발표된 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하기로 한다.

고대 이집트건축

김윤희(피드인스티튜트 대표), 오영근(호서대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한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사냥감으로 나일강유역에는 일찌기 정착 사회가 세워졌고, 관개사업의 발달 등으로 이집트 문명의 성장기반이 이루어졌다.

기원전 3,000년 경부터 고왕국(제1왕조~제10왕조) 중왕국(제11왕조~제17왕조), 신왕국(제18왕조~제30왕조)의 통일왕국을 이루었으나, BC 341년 페르시아에게 제2차로 정복당하였고, 그후 Alexander대왕의 원정에 의한 Ptolemaios시대, 그 다음 Rome에게 지배당하는 등 그 옛날의 영광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1922년 독립하여 오늘에 이른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종교관은 불멸의 개념과 깊어 관련되어 사후세계의 안전과 행복에 몰두하였다. 인간은 Set(육체)와 Ka(영혼)가 하나로 되어 이 세상에 살고, 육체가 죽으면 Ka는 시체에 남아 계속 살아간다고 믿었다. 사후 Ka의 안전을 위하여 시체를 미이라로 해서 보존하고, 지상에서 쓰던 생활필수품도 공급되었다.

이집트의 통치자는 파라오(왕)라는 전제 군주였고, 파라오는 신성한 존재로 신의 이들로 떠받들여졌다.

피라미드와 신전은 바로 파라오의 미이라를 간직한 무덤이며, 그의 명복을 빈 제당이었다.

이집트 건축의 형태는 단순한 입체형태와 가구식 건축의 두가지로 나타나며, 분묘건축·신전건축·오벨리스크·주거로 분류된다.

분묘건축에는 마스타바석실분묘·피라미드·절석분묘의 3가지 형태가 있으며, 신전은 신격화된 왕에게 드리는 종교의식을 위한 분묘신전과 고대의 신과 신비의 신을 모시는 일반인의 예배를 위한 제사 신전이 있다.

마스타바(Pyramid 이전의 왕·귀족의 묘, 제3왕조, Gizeh)

벽돌이나 돌로 된 직사각형의 구조물로 경사진 측면을 갖는 간단한 입체물이다.

수직통로에 의해 외부와 연결되는 지하묘실 위에 세워졌으며, 연결통로를 갖는 지하묘실 외에도 Ka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사실과 죽은 사람의 상을 보관하는 방인 세르답이 설치되어 있다.

Step Pyramid(제3왕조, Sakkara)

마스타바 위에 조금 작은 모양의 것을 차례로 쌓아 올린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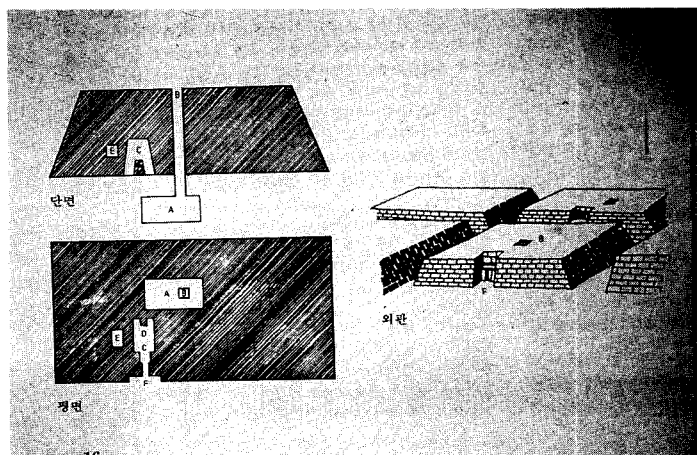
Zoser 왕의 것이 유명하다.

스핑크스(제4왕조, Gizeh)

피라미드의 수호신이며 동시에 제단으로 쓰여졌다. 정방형 Plan의 사각추, 네개의 면은 정확히 동서남북을 향하며, 표면은 석회석 혹은



계단식 마스타바 Step Pyramid와 제사신전



마스타바 평면, 단면, 외관

은 화강암으로 화장됐으나 지금은 없다.

내부는 왕과 왕비의 묘실, 그에 이르는 대 회랑이 있다.

피라미드 (제3~5왕조, Gizeh)

특히 유명한 피라미드는 쿠푸, 카프라, 멘 카우라의 세 왕의 것으로 제4왕조의 것이다.

기제의 피라미드는 마스타바로부터 비롯되 는 건축의 발전에 있어서 절정을 이루며, 왕 권이 가장 왕성했던 때와 일치한다.

카르나크 신전 (BC 1300년경)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신전의 전면에 람세 스 2세가 건축한 거대한 다주실이다.

다주실은 성소로 가는 통로로 이집트문화의 기본적 상징인 통로를 실체화 시키고 있다.

다주실의 형태는 양쪽의 낮고 밀집된 공간 사이에 덜 밀집된 중앙 공간이 있는 형태이 다. 여기서는 선 또는 수평축이 형태의 주된 요소가 된다. 구성의 요소는 대칭·균형·대조 등이다.

중앙부의 높은 기둥의 주두는 종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낮은 기둥들은 봉오리 형태의 주두를 갖고 있다. 부조와 그림들은 수평띠 형태로 넣기에 알맞도록 주신의 표면은 틈이 없고 평탄하게 만들어져 있다.

영속성이라는 주된 의미는 여기에서 거대하 고 초인간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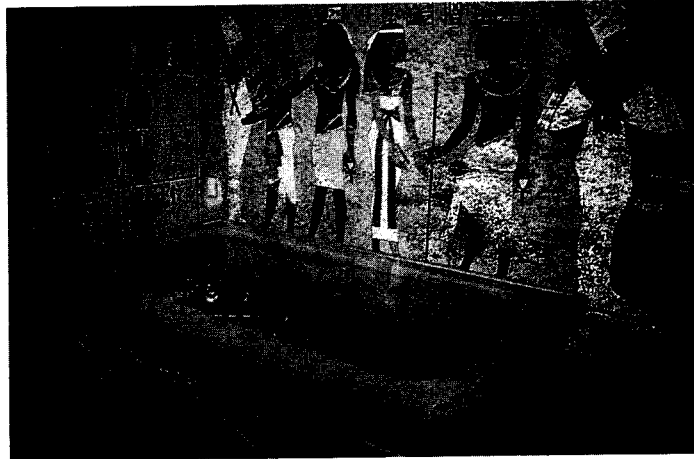
고대 그리스건축

정낙원 (신구전문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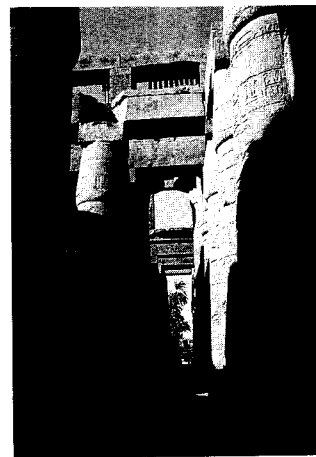
페르시아 전쟁 (BC 492년~BC 479년) 이후 전성기 동안 아테네는 그리스 문화의 중심이 되었다. 아테네는 개방적인 민주주의사 회를 최초로 이룩한 도시국가로 개인의 인간 적 자유에 대한 이상이 여기에서 싹텄다. 그 들은 인간과 동물이 구별이 되는 것은 지성이 라고 생각했고, 이성적 질서를 향한 정열은 철학체계를 만들어 냈으며, 이것은 이후의 모 든 철학의 기초로 남게 되었다. 이성적 추구는 미의 추구와도 연관되었다.

그리스의 신은 단지 죽지 않는다는 점에서 만 인간과 달랐다.

아테네인들은 지적교육과 신체단련의 조화를 인간교육의 이상으로 삼았다. 그리스 건축의 주된 형태는 신전으로 이 신전건축은 본질적 으로 기둥과 보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식 구조 이다. 선이 형태의 기본요소로 시각적으로 정 제되어 있다. 이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외



루트 앙크이문 왕의 미이라



카르나크 신전

부공간으로서의 신전이었으며, 매우 질서있 고, 짜임새 있고 대칭적인 면을 보여준다. 한 편 외부는 조각품으로 장식되었다. 전체적인 형태는 인간의 신체를 추상화한 것으로 외부 공간에서 움직이는 조각적 조형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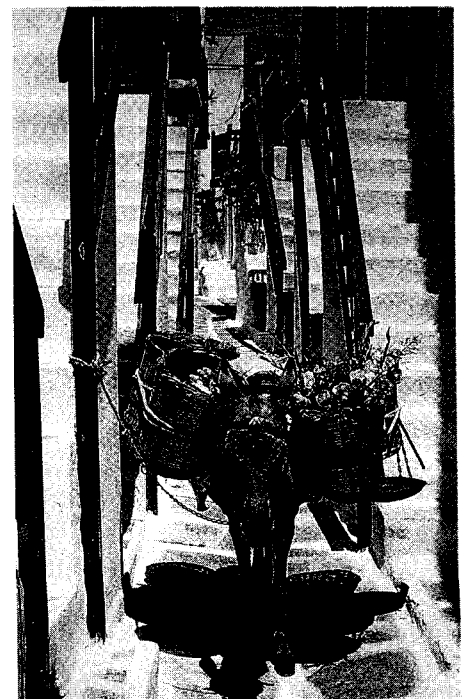
인체에 근거한 크기와 비례는 그 주요특성 중의 하나이며, 이 형태 요소들은 정적인 틀 속에 있으면서도 동적인 특질을 갖고 있다. 입면상으로 그리스의 신전은 기단 혹은 기초, 기둥 그리고 상부구조 혹은 엔타블레처의 세 부분으로 나뉘며 이 세 부분의 조합을 건축의 오더라 부른다. 도리오더, 이오닉오더, 코린티안오더가 있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그리스의 신전이 근본적으로 건축작품인가, 조각작품인가에 대한 논쟁은 아크로폴리스를 건축의 외부공간으로 봄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신전과 그 밖의 3차원적 실체들은 인간적 척도를 응용하여 지어진 이 탁월한 동적인 공

HYDRA섬 : 좁은 골목에 바닥은 돌로구성



간을 정의하는 요소들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공간의 입구는 경사가 덜 심한 서쪽에 있다. 비정형적으로 위치한 계단과 경사로는 모든 강압적 통제를 의식적으로 피하고자 한 것이며, 직선적인 축에 의한 접근을 회피하고

있다.

파르테논 신전(익티노스와 칼리크리테스작, BC448~432)

이 건물은 아크로폴리스에서 최초로 건축된 가장 큰 건물로 아크로폴리스의 건축에 있어

그 절정을 이룬다. 이 건물은 이 도시의 여신인 아테나 파르테노스(처녀 아테나 여신)에게 바쳐진 것이다. 파르테논은 사면에 열주가 있는 신전형식으로 그리스 건축에서는 드물게 잘 발전된 실내건축공간으로 생각될 수 있다.



파르테논 신전 (보수중)



전경이 아름다운 그리스 주택

터어키건축

서승하(한티디자인)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한 비잔틴제국은 서로마제국의 멸망 후에도 1,000년 가까이 지탱하다가 1,453년 오스만투르크족에 의해 멸망하였다.

비잔틴제국은 그리스도교세계에 대한 이슬람교도들의 침입을 막아내어 유럽의 고대문화를 보존하는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나아가 그리스문화와 헬레니즘문화를 계승하고 거기에 그리스정교를 결합시켜 서유럽과는 다른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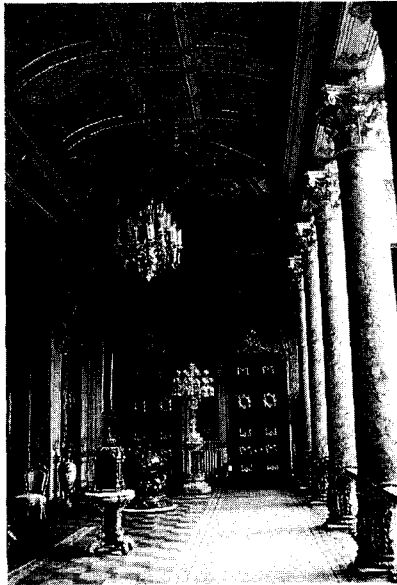
성소피아성당은 6세기 중엽 유스티아누스 황제때 지어진 것으로 비잔틴제국의 대표적 건축물이다.

1453년에 이슬람의 중심세력이었던 오스만투르크족은 콘스탄티노플(이때부터 이스탄불이라 칭함)로 수도를 옮겨 오스만제국을 건설하였고 16세기 중엽 최전성기를 맞았으나 18세기 이후 쇠퇴하기 시작하다가 1923년 터어키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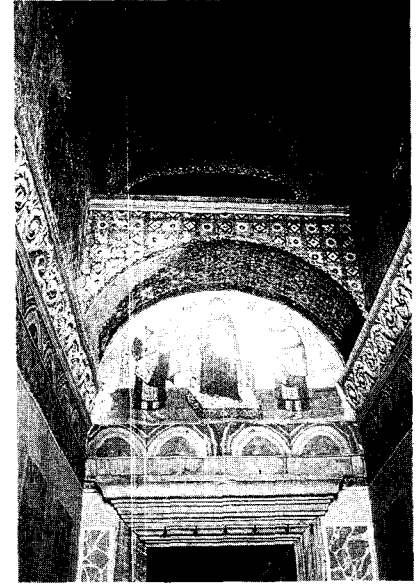
초기 이슬람문화는 코란 중심의 아랍문화였으나, 오스만제국의 발전에 따라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아랍, 인도, 이란 등 우수한 전통문화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다채로운 문화를 형성하였다.

이슬람의 시각예술은 알라신을 인간적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금지되었으므로 상당히 추상적이고 장식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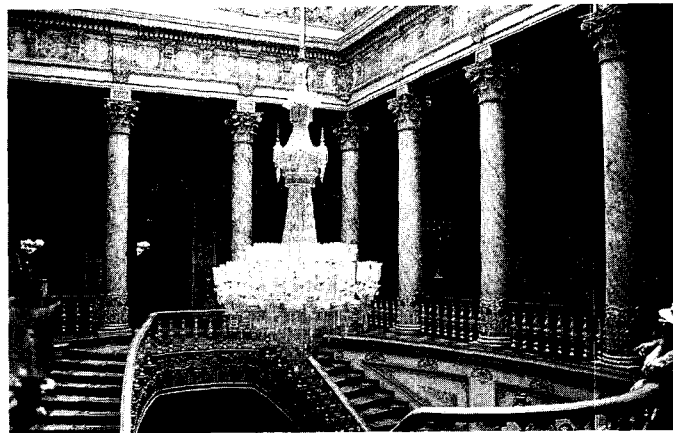
이슬람의 건축은 확장을 쉽게 할 수 있는



돌마바체 궁전



성소피아 성당



돌마바체 궁전

구조적 기술을 창조적으로 이용했으며, 여러 형태들의 이치들이 발전되었다.

이슬람건축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로마와 비잔틴의 돔으로부터 출발하여 새로운 내부공간을 발전시킨 점이다.

주요 건물형태는 이슬람사원 외에도 궁전, 묘, 성채 등이 있다.

성소피아성당(BC532~537년경)

‘성스러운 지혜’라는 뜻의 성 소피아 성당은 세계건축사상 가장 뛰어난 작품중의 하나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고대 로마의 두 장대한 건축공간 즉 막센티우스의 바실리카와 판테온을 하나로 합치고 있으며 공간적으로 바실리카의 장축적 개념과 중앙집중적인 배치를 최초로 완벽하고 성공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돌마바하체궁전

오스만터키제국시대 왕들의 여름별장으로 사용되었던 호화궁전으로 프랑스의 베르사이유궁전을 모방하였으며 세계 제1의 크리스탈 샹들리에와 수많은 수제품의 카페트가 당시 오스만제국의 영화를 보여준다.

동구건축

안희영 (건축대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프라하

9C말 보헤미아 왕국의 수도로서 ‘북쪽의 로마’로 불릴 정도로 다양한 양식을 간직한 도시이다.

11-13C의 로마네스크, 13-15C의 고딕양식, 16C의 르네상스양식, 17-18C의 바로크양식 등 흔히 100탑의 도시라 불리고 근대에 들어와서는 세세션 스타일, 아르누보와 그 역사는 짧았으나 큐비즘 건축물도 엿볼 수 있는 그런 고전적 도시라 할 수 있다.

본역(Hlavnt Nadrazi)와 Holes Ovice를 중심으로 프라하의 봄의 바츨라프광장(Va clavskenamesti)은 우리가 잘 아는 곳이며 화약탑(Prasna brana)과 그 주변 구시가를 보면 중세시대로 돌아온 착각마저 든다. 유테인들의 비극 계도의 바가가 있으며 락교회(Marie Pred Tymem), 13개 다리 중 가장 아름다운 가톨릭(Karluv Most), 오페라하우스와 부속식당인 모짜르트의 살내는 세세션 스타일의 정수가 아닌가 싶다. Grand Hotel은 실내디자인가 한번쯤 꼭 으면 좋을 곳이고 Hradcany성과 국립박물관(보헤미안 그라스로 유명하며, 광성수집박

물관) 등 헤아릴 수 없는 건축물이 저녁노을에 비친 스카이라인은 낭만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부다페스트

도나우강의 진주라 불리는 부다페스트는 중유럽의 가장 큰 도시이다. 부다페스트는 도나우강을 두고 부다지역과 페스트 지역으로 나뉘어지는데 부다는 아르파드왕조가 번영했던 13C이래 왕궁이 있던 곳으로 1873년 페스트지역과 합쳐졌다.

에르제베트(Erzsabet)다리를 비롯한 8개 다리, 어부의 요새(Halaszbastya)1899-1902, 국회의사당(Parliament), 네오고딕의 마차시교회(Matyas Templom), 겔레트 언덕(Gellertegy)이 언덕은 부다페스트의 전망대라 불릴 수 있다.

Hotel Gellert의 부속 온천장은(1911-1918) 그 화려함이 압권이라 하겠다. 이런 시대의 온천은 주로 16C 터키 점령시대에 개발되었다고 한다.

아르누보와 19C말 헝가리 민족양식을 중시한 세세션 스타일의 건축물이 많이 있으며 무엇보다 도시 건축물에 비추어진 조명효과로 부다지역에서 왕궁을 향한 야경은 커다란 오페라 세트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낭만적이라 하겠다.

독일현대건축

신홍경 (경원대 실내건축학과 교수)

최근 10년을 기점으로 도시의 문화적 상승의 표현이 건축과 예술의 동시대적 만남의 장소 제공으로 급격히 이루어졌다.

Deutsches Postmuseum - 건축가, Benisch and Partner. 1984 - 1990

기존의 오래된 빌라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정보전달 수단의 전시로 활용되고 있다.

Museum Feuer Kunsthandwerk - 건축가, Richard Meier. 1982 -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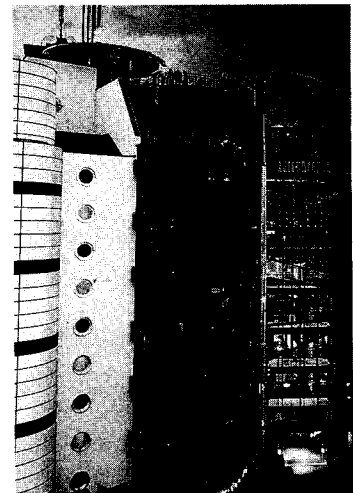
기존의 빌라 메츨러(Metzler)와 나무가 우거진 공원을 보존시킴을 원칙으로 가지는 수공예품의 전시를 위한 계획. 새로 계획된 신축건물을 기존의 빌라 메츨러로부터 얻어진 수차에 의해 반복과 배수의 발전에 따른 평면과 입면의 조형성을 가지고 있다.

Museum fuer Moderne Kunst - 건축가, Hans Hollein. 1987 -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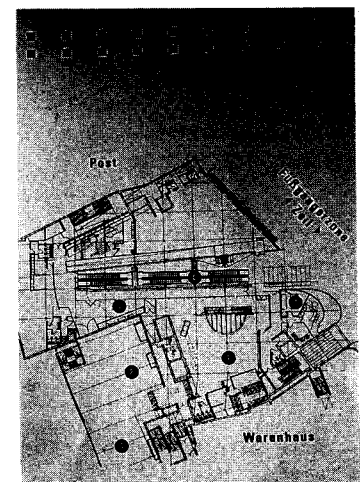
삼각형의 대지평면은 도시건축적 고려하에 계획됨과 동시에 조형예술 오브제로서의 시각적 전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 마감재료(적색사암미장) 사용을 통해 도시의 장소성인 기존의 건물들과의 관계를 맺어주고 있다. 3층으로 이루어진 전시공간은 사선으로 구분된 계단에 의해 총체적 공간 관람을 유도하고 있다.

Museum fuer Vorund Fruehgeschichte - 건축가, Josef Paul Kleihues 1985 -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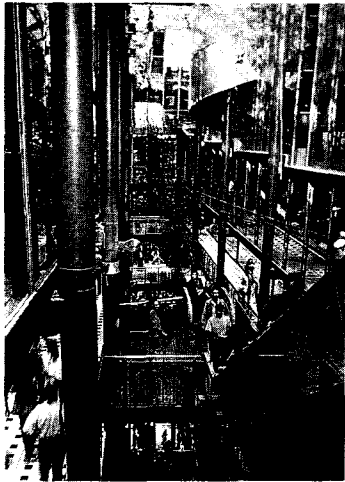
전시공간을 위한 주층(주출입구와 교회의 연결), 자료실 및 복구 작업실의 지하층, 행정실과 학문연구실의 상층화, 이 박물관의 기본구성은 위와 같은 공간적 배치개념에 의해 강조되며 카르메리터수도원과 교회의 카펠레의 공간적 건축적 조화를 위한 아주 잘된 도시계획적 개념의 계획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일 Frankfurt Zeilgalerie 백화점 외부



독일 Frankfurt Zeilgalerie 백화점 도면



독일 Frankfurt Zeilgalerie 백화점 내부

한국현대실내디자인의 표현경향 (90년대를 중심으로)

김문덕(건국대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80년대 Memphis로 대표되는 실내디자인분야에서의 포스트 모던 경향의 대두라는 국제적 흐름과 상업적인 인테리어 실수 요지로 부상한 신세대의 대두라는 국내적 흐름은 장 보들리야르가 말하는 이미지 소비현상을 가속화시켰으며 이에 따른 변화의 킴투들이 80년대 말부터 국내 상업실내공간에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80년대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경제적 풍요 및 대중소비사회로의 진입이라는 사회적 상황의 변화는 70년대의 닫힌 사회에서 80년대의 열린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변혁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 변혁은 실내디자인 분야에 있어서도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징후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금욕적인 근대디자인양식의 세례를 받지 않은 젊은 실내디자이너의 작업이 80년대 후반부 이후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다원적 징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 흐름을 배경으로 90년대 한국현대실내디자인의 표현경향을 전통표현경향, 근대주의 표현경향, 탈 근대 표현경향, 해체적 표현경향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전통표현경향

전통표현경향은 직설적 복고주의 형식, 이미지 추상형식, 전통요소 변용형식 등으로 세분화하여 설명하고자 하며 80년대 일본교과서 파동에 이은 독립기념관의 건립과 전통과 한국성 표현이라는 문제와 연결시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근대주의 표현경향

과거의 근대주의 표현경향과는 다른 업무공간 등에서 곡선의 채용 등 부드러운 분위기가 가미된 변형된 근대주의 표현도 나타나고 있으며 절충적인 표현의 근대주의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탈 근대 표현경향

Memphis의 영향과 함께 초기에는 절충적 성격의 탈 근대 표현경향과 함께 공간과 형태가 어우러지는 탈 근대표현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해체적 표현경향

본격적 의미의 해체적 표현경향이라기 보다 부분적으로 이 경향의 시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근대주의 합리성의 부정적인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기술 표현경향

88올림픽이후 건축에서 가시화된 기술표현 경향은 실내디자인분야까지는 가시화시키지



Memphis의 영향이 엮이는 카페 언사아메

우원 디자인 사옥



는 못했으나 부분적인 시도들은 나타나고 있다.

90년대 한국현대 실내디자인의 표현경향은 다원화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고 나름대로 독자적인 흐름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80년대와는 차별화된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다.

유럽의 현대인테리어디자인 표현경향

박진배(한성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우리 시대의 실내디자인을 이야기할 때 '표현경향'이라는 단어는 매우 적합하게 느껴진다. 그만큼 실내디자인이 이야기하는 범위가 다양해지고 풍요로워진 까닭일 것이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디자인을 주도해 왔다는 자부심을 가진 지역으로 프랑스, 이태리, 스칸디나비아 등 찬란한 디자인의 왕국들이 즐비한 장소이다. 그러한 전통과 교육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현대에도 우수한 디자이너들이 자신들

의 기량을 자랑하며 활동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유럽의 현대 실내디자인의 경향들은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독립된 자체의 특성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많은 경향들을 전세계의 디자인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화시대로 이미 진입한 현대, 그리고 더욱 국경의 한계를 의미없게 만들고 있는 정보화 사회의 진입시점에서 유럽이라는 지역적으로 제한된 곳의 디자인 경향을 분석해 보는 자체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세계의 정보가 매우 빠른 속도로 교환되고 디자인이 교류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나라별, 지역별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작품들이 고도의 세련미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은가하는 느낌이 더욱 강하게 다가온다. 20세기 초반의

‘국제주의 양식’이 아닌, 새로운 의미에서의 공통된 현대디자인의 경향이 산출되고 있다는 뜻이다.

현대 유럽의 실내디자인은 종합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의 배경으로, 건축에서 AA대학 디자이너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것과 보조를 같이 하며 실내디자인에서도 유럽의 우수한 대가인 명문대학 출신들의 작품들이 많이 평가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실내디자인 학문이 먼저 독립된 곳은 미국이지만, 유럽 특유의 토탈디자인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대학에서 실내디자인의 교육도 체계화되고 훌륭한 프로그램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의 바탕이 전통적으로 강세에 있는 유럽디자인의 자존심을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되었다. 디자인 역사적으로는 기능주의, 국제주의 양식 쇠퇴 이후 탈 근대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상적 의미에서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영향으로 다양한 디자인의 경향들과 그러한 개념을 반영하는 작품들이 등장하였다. 70년대의 퐁피두센타를 시작으로 만들어지는 하이테크의 디자인은 여전히 강세를 보여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맥락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체주의, 팝아트 등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경향들도 80년대 이후 계속해서 선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80년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실내디자인의 주된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디자인 사조의 출현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인 독특한 성향을 가지는 디자이너들의 활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이너들은 시대의 경향에 부응하며 요구되는 경향으로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하이 테크적인 디자인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들이 추구하는 디자인이 현대실내디자인의 표현경향으로 대두하면서 중요한 흐름의 하나로 위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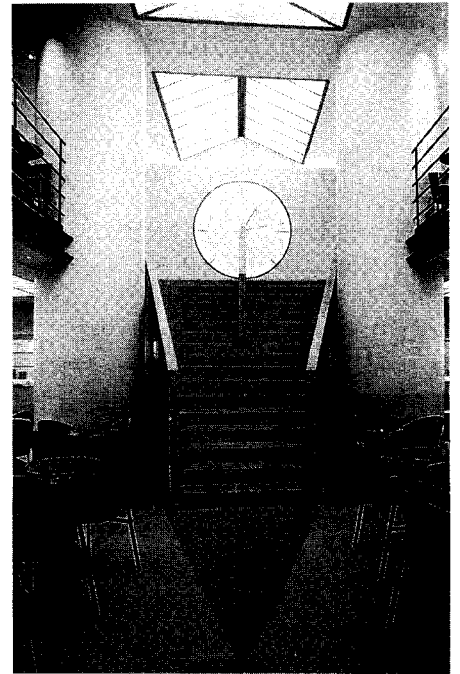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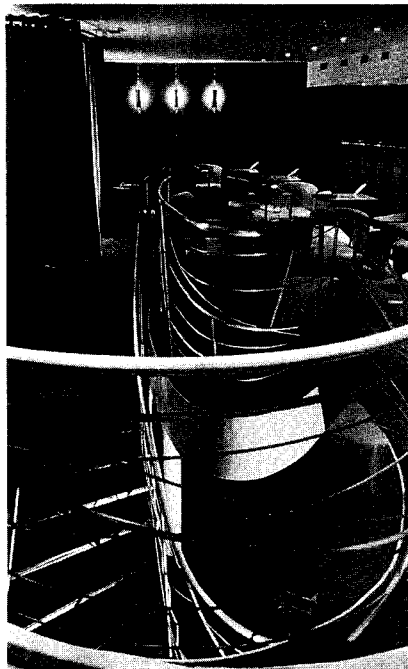
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유럽에서 활약하는 디자이너들의 경향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커다란 흐름으로 인지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을 표현하고 있다.

첫째는 디자인표현의 강조이다. 디자이너들은 자신이 완성하는 작품이 실내디자인에서 본질로 평가되는 3차원의 생활공간이건 2차원적 시각적 매체로의 컨셉이건 재료와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표현으로서의 디자인을 강

조하여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느낌을 증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회화적인 느낌이나 조각적 해석으로의 공간을 창조하는 디자이너들이 전자에 속하며, 페이퍼 디자이너들은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조형성의 강조다. 이는 20세기 중반까지 강조되었던 기능성과는 대비되는 의미로, 예술작품으로서의 디자인을 추구하는 경향이다. 디자이너들은 근대 초기부터 형성되어 오던 토탈디자인의 개념을 바탕으로 기능적인 조합 뿐만 아닌 형태로서 디자인의 요소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패션으로 완성하는 작업을 실행하며 실험적 재료와 형태의 사용으로 조각적, 다차원적 표현의 연출을 시도하여 색채와 다양한 질감의 호소를 통해 풍요로운 조형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셋째는 힘있는 컨셉의 강조와 시(詩)적인 디자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디자이너 개인이 탐구한 논리와 그를 뒷받침하는 강한 컨셉을 중심으로 전개한 스토리를 완성하고자 하는 공간을 통해 치밀하게 연출하는 경향을 뜻하며, 기능성, 효율성과 같은 과학적 측면 보다는 정확한 철학적 의미를 공간에 도입하려는 사상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주요 경향 이외에도 환경 소프트웨어 디자인의 발달이라든가 인테리어디자인에서 그래픽적 요소의 도입, 시간의 디자인과 같은 첨단적 경향들이 종합적으로 결합하여 현대 실내디자인의 표현 경향으로 풍요로움과 개성을 더해주고 있다.



파리의 카페 포스트; 필립스타의 '동키호테 컨셉'이 잘 반영됨.



안토니오 차테리오의 '브레아 주택' 내부

마리 크리스티앙 도레의 '호텔 라 빌라' 로비